

일본 근대문학자의 <東海> 인식

—이시카와 타쿠보쿠를 중심으로—*

윤재석** 2)

目次

1. 서론
 2. <동해>의 역사적 지도 표기
 3. <동해>의 국제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로 된 이유
 4. 타쿠보쿠의 <동해>
 5. 타쿠보쿠의 <일본해>
 6. 맺음 말
-

1. 서론

현재,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바다의 명칭을 두고 한국은 <동해>라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기 어려운 명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쪽의 바다이니 <동해>로 불리는 것은 당

* 이 논문은 2004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일근대문학

연한 자연 발생적 명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서해가 아닌 <일본해>와 같이 일본이라는 국가 명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명을 표기할 경우에는 해당 바다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되어 있다.

본고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문제를 일본 근대문학자의 동해 인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역사적으로 <동해>와 <일본해> 표기가 지도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해>의 국제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로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주장하는 <동해> 표기의 타당성 또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해> 표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각을 달리하여 메이지시대의 문학자를 보면, <동해> <일본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로, 일본의 대표적 국민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시카와 타쿠보쿠를 볼 수 있다.

타쿠보쿠는 어떠한 의미에서 <동해> <일본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근대 문학자 타쿠보쿠를 통해 본 <동해> <일본해>의 의미 고찰 결과는 문화적, 또는 자연 발생적 측면에서 <동해> 또는 <일본해> 표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동해>의 역사적 지도 표기

역사적 지도 자료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까?

한국의 고지도에 <동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타난 지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이다. 이 지도는 한국에서 인쇄본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1530년)에 간행된 것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임진왜란 후에 복간된 것이다. 이 <팔도총도>에는 주로 산과 하천, 바다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바다의 명칭은 동해, 남해, 서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지명은 바다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동해를 제사지내는 장소에

기입되어 있다. 즉 동해의 신을 제사지내는 강원도 지역에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남해는 전라도에, 서해는 황해도에 표시되어 있다. 다음은 그 <팔도총도>이다.



<팔도총도> 《신증 동국여지승람》

한국 주변의 바다의 명칭을 명확히 의식하고 제작한 지도로 <서북궤도>를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지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서북부에 위치하는 중국의 북경과 산둥반도를 포함하는 화북지방 일부와 만주 지방을 포함하는 관방지도로서, 한국의 북부지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작연대는 1776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는 <동해>라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황해는 발해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말 정조시대에 제작된 전국지도로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아국총도(서울대 규장각 소장)가 있다. 이 지도는 여지도(與地圖)라고도 한다. 이 지도에는 동해, 서해라는 명칭이 바다 부분에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아국총도>이다.



<아국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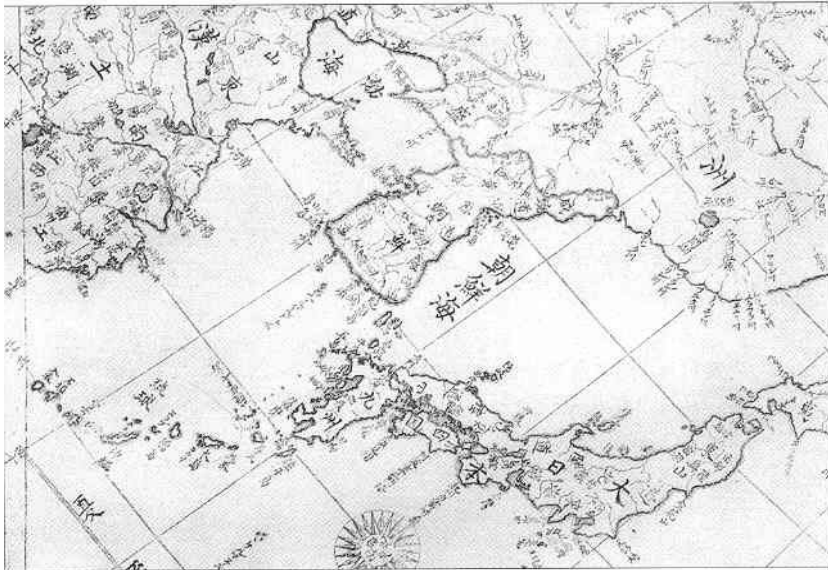
이어, 구한말 개화기 지리교과서인 《신편대한지리(1907)》, 《대한지리지(1907)》, 《최신초등대한지리지(1909)》등에는 <조선해> 또는 <대한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전후해서 지도의 <동해>명칭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1911년 총독부의 검정을 받아 출간된 《최신조선팔도》를 보면, 종전의 <대한해>를 <일본해>로, <대한해협>이 <조선해협>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해>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게 된 배경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보호 조약, 한일합방 등과 같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제국주의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일본의 지도에서도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가쓰라가와가 제작한 《아시아전도(1794)》, 《일본변계약도(1809)》, 에도 막부 말기 지도제작의 권위자였던 타카하시 카게야스가 제작한 《신정만국전도(1810)》, 《대일본연해전도(1854)》, 《관허대일본사신전도(1870)》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1) 다음은 <조선해>라고 뚜렷이 표기되어 있는 《일본변계약도(1809)》이다.



《일본변계약도(1809)》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동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613년 중국의 창황이 만든 《사해화이총도(四海華夷總圖)》를 보면, 한반도가 <조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 지도이다.

1) 김신,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1997 p.127~128)



《사해화이총도(四海華夷總圖)》

또한, 1600년대 이후 동해 바다에 대한 서양 고지도의 표기를 보면, <1615년 고 단호 데 헤레디아의 “아시아도”에는 한국해(MAR CORIA)로 표기>, <1747년 존 그린의 “동아시아도”에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 <1794년 영국 런던에서 제작된 “아시아 섬들과 지역”에는 한국해(COREAN SEA)로 표기>, <1881년 프랑스 들라르마쉬의 “아시아지도”에는 한국해(MER DE COREE)로 표기>, <1840년 런던에서 제작된 라이자스의 “아시아 전도”에 한국만(GULF OF COREA)로 표기> 등과 같이 대부분이 <한국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²⁾

이상과 같이 한국과 중국, 일본, 서양의 역사적인 지도 자료로 볼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의 표기는 <동해>나 <조선해><한국해>가

2) 전계서, p.129~131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일본해> 표기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일까?

3. <동해>의 국제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로 된 이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략 19세기 중엽까지,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 부르는 바다의 명칭이 국제적으로는 주로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되어 왔음을 알았다. 즉, <동해>나 <한국해>라는 명칭이 한국에서만 사용되어져 온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명칭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부르는 것을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호칭되는 바다이름을 보면 예외가 있지만 일정한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해당바다의 서쪽에 있는 국가의 지명을 표기하는 원칙이다. 황해는 중국의 황하가 흘러드는 바다이기 때문에 “YELLOW SEA”라는 국제공식지명으로 표기된다.

러시아의 오흐츠크시 동쪽바다는 오흐츠크해이며, 오키나와 서쪽의 중국 동쪽바다는 동중국해, 필리핀 서쪽의 중국 남쪽바다는 남중국해, 티모르섬의 동쪽바다는 티모르해, 오스트레일리아남부의 태즈메니아 동쪽, 뉴질랜드와의 사이에 있는 바다는 태즈만해, 아라비아반도의 동쪽바다는 아라비아해, 멕시코 동쪽바다는 멕시코만, 캐나다 래브라도 반도의 동쪽바다는 래브라도해,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 뱅골만의 안다만 동쪽바다는 안다만해라고 표기되고 있다.³⁾

이와 같이 <해당바다의 서쪽에 있는 국가의 지명을 표기>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략 19세기 중엽까지 <동해> 또는 <한국해>로 불리던 명칭이 현재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어째서 일까?

3) 전게서, p.126

여기에는 근대 시기의 식민지 역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세계의 바다에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회의인 국제수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19년의 일이었다. 즉,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수로회의를 모체로 하여 1921년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수로국이 설립되었고, 이 국제수로국은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해양 관련 서적을 간행하게 된다. 여기에, 일본이 <일본해 (Japan sea)>라는 명칭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⁴⁾

이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동해 바다의 국제적 공식 명칭이 <일본해>로 통용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식민지 제국주의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4. 타쿠보쿠의 <동해>

타쿠보쿠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때인 1904년 4월, 이 전쟁에 대한 감회가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이와테일보 (岩手日報)》에 게재한다.

최근의 전황을 말하면, 한 마디로 이 보다 더 기쁨일은 없을 것이다. 와신상담한지 10년, 이처럼 고귀한 온 국민의 힘과 피를 내 던져 얻은 영광의 전승보에 접하여, 누가 온 성의를 다해 환호의 소리를 외치지 않겠는가?

내 고적함을 좋아하는 자이지만, 또한 촌로의 주홍에 어울려, 애국자임을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전승의 영광은 이제 엄연한 사실로서 동포의 눈앞에 무지개처럼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때, 인순고식한 술수로 민중을 우롱하는 과거의 죄를 가지고 당국을 책망하는 따위는,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써, 단지 어떻게 승리 후의 결속을 다질 것인가 하는 각오를 하게 이르렀음에, 양식 있는 자는 온 몸으로 질타 독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생략 -

동해의 군자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까닭은, 첫 째로 선혈을 성난 과도에 씻고, - 생략 -

4) 《아! 동해 그 이름을 찾아서》, 조선일보사 - 경희대학교, 2002.10

즐거이 주홍에 달리고, 잔치에 들뜬 우리 백성은 혹은 역사적 인습으로서 주홍과 잔치를 즐기는 백성의 성격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천재일우의 호기회를 맞이하여, 동포로 하여금 만일 유구한 광영을 계획하지 않게 하고, 헛되이 일시적인 군사적 승리와 천박한 외국인의 칭찬에 현혹된다고 한다면, 나는 곧 백부와 함께 여생을 산야의 초목에 묻히고자 한다. - 생략 -
(〈시부타미에서(澁民村より)〉→《이와테일보》1904년4월28일부)

이 무렵은 일본이 서구의 열강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계속하여 승리하던 시기이다.

글의 내용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며 환희를 올리자는 그러면서도 전후를 대비하자는 다분히 내셔널리즘적 색채가 강한 글이라 할 수 있다.

타쿠보쿠는 여기서 일본을 <동해>에 위치한 <군자국>이라고 칭하고 있다.

러일전쟁 속보로 가득했던 당시의 신문을 보면, <동해>라는 명칭 대신 <일본해>, 일본 열도의 동쪽 바다는 <태평양>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었다.

타쿠보쿠는 이와 같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맥을 고려하여 실제의 명칭을 쓴다면, 일본의 바다라는 의미에서 <일본해>를 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 타쿠보쿠는 일본의 지도 명칭에 없는 동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타쿠보쿠는 어째서 일본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을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은 인용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내 고적함을 좋아하는 자이지만, 또한 촌로의 주홍에 어울려, 애국자임을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

<전승의 영광은 이제 엄연한 사실로써 동포의 눈앞에 무지개처럼 드리워져 있다>

<동해의 군자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까닭은, 첫 째로 선혈을 성난 파도에 씻고, >

<즐거이 주홍에 달리고, 잔치에 들뜬 우리 백성은 혹은 역사적 인습으로서 주홍과 잔치를 즐기는 백성의 성격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

이 글의 어휘나 성격을 보면 다분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한마디로 말하

자면 시적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적 담론의 글에서는 <일본해>보다는 <동해>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타쿠보쿠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타쿠보쿠의 이러한 시적 담론에 대한 경향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해인 1906년 새해를 맞는 감회를 적은 글이다.

<고주신주 (古酒新酒)>《이와테일보》1906년1월 1 일

메이지38년은 세계나 일본이나 또한 내게 있어 실로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해이다. 세계 제1의 해전도 이 해에 일어났다. 동방해상의 한 섬나라가 세계 제1의 양반국이 된 것도 이 해이다. - 생략 -

일본은 <동방해상> 즉 동쪽 바다위에 떠 있는 섬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바다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동쪽 바다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 발생적 용어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단가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동해의 작은 섬 해변 모래사장에
나 슬퍼 눈물 흘리며
계와 거닐었네

유명한 단가집 《한 줌의 모래(一握の砂)》에 실린 첫 번째 단가로서, 일반적으로 <홋카이도에서 상경한 후, 창작생활에 실패하여 홍고구 키쿠자카초 세키신칸에서 하숙을 하며 고뇌의 날들을 보내던 시기의 작품이다. 주제는 <나 슬퍼>에 나타난 방랑의 슬픔 >5)와 같이, 타쿠보쿠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내용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타쿠보쿠는 <동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동양의 중심이며, 그 동쪽 바다에 일본이 있으니 그 바다의 명칭은 <일본의 바다(日本の海)—동 쪽의 바다(東の海)>라는 식으로 <동해>라고 표현된

5) 岩城之徳編 《石川啄木必携》，学灯社,1981. p.20

것이다. 다분히 국수주의적 애국주의적 발상의 용어라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⁶⁾ 당시의 타쿠보쿠의 담론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타쿠보쿠가 어째서 일본이 동양의 중심이며, 국수주의적 발상에 의한 용어로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러한 발상이라면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주의의 산물인 일본해가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시적 담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타쿠보쿠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본 바다라는 구체적이며 정치적인 용어보다는 막연하며 먼 미지의 환상적 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있는 동쪽 바다가 시적 담론에는 더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⁷⁾

타쿠보쿠의 <동해>에 대한 시적 담론은 다음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1904년 4월 여순항 해전에서 러시아 해군 제독 마카로후가 전사하게 된다. 타쿠보쿠는 마카로후 제독의 전사를 적이지만 애도하며 <마카로후제독 추모시(マカロフ提督追悼の詩)>⁸⁾를 짓는다.

마카로후 제독

아 위대한 패자여 당신의 이름은
마카로후 급작스런 죽음의 파도에
최후의 권위를 떨친 그 이름은
마카로후 이국의 외로운 영웅,
당신을 생각하면, 몸은 여기 적국인
동해의 일본의 한 시인,
적이지만 고통스럽게 소리높여
큰소리로 외치네
- 생략 -

6) 國際啄木学会編《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 2001, p.155

7) 타쿠보쿠 연구사에서는 이 <동해>의 해변을 하코다테(函館) 앞 바다인 오오모리 해변(大森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코다테 앞바다라면, 지리적으로 남쪽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의미에서 <동해>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8) 이 시는 <메이지 37년4월13일, 우리 토오고 해군 대제독의 함대가 여순항을 공격하자, 적장 마카로후 제독이 황급히 명을 내려 기함 페트로파브로스크를 항구 외곽으로 출정시켰지만, 불운하게도 우리 군이 설치한 수뢰에 걸려, 거함은 폭발하고, 제독 또한 기함과 운명을 같이 했다 >라는 서문과 함께 10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아의 하늘에 가득한 어두운 구름
 어지럽고, 황해의 파도는 거칠다,
 가련한 패함 여순의 바다는 차갑고
 그림자도 쓸쓸하게 고국의 운명에,
 그대는 일어섰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 생략 -

마카로후 제독이 전사한 곳은 <여순> 앞 바다 즉, 황해이다.
 타쿠보쿠는 <동아의 하늘에 가득 찬 먹구름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황해의 파도는 거칠다>와 같이 <황해>는 그대로 <황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황해>라는 명칭이 자연 발생적 명칭이며, 시적 표현에도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황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서쪽에 있는 바다이므로 서해라 부르지만, 정치적 산물이 아닌 관계로 국제적 공식 명칭이 되어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 제기는 않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명칭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타쿠보쿠는 자신을 <머나먼 동해>에 떠 있는 <적국인> <일본의 한 시인(日本の一詩人)>이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쓰인 <동해>의 의미도 전술한 <동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동해>는 시적 문학적 담론, 자연 발생적, 생활적 담론에 어울리며, 이러한 담론일 경우에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 <동쪽바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적 담론의 표현은 타쿠보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나 도이 반스이(土井晩翠)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노구치는 1903년(메이지36)10월 《FROM THE EASTERN SEA BY YO NE NOGUCHI》라는 서명으로 영시집을 간행한다. 이 시집의 첫 장에는 <이 시를 후지산의 혼에게 받친다 (I DEDICATE THIS BOOK TO THE SPIRITS OF FUJI MOUNTAIN)>라고 쓰여 있듯이, 일본 땅과 일본인을 지탱해 주는,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후지산에 대한 외경이 그려져 있다. 또한, <O Hana San><O Haru><Tsune>(여동생 이름) 등의 제목의

시에는 귀여운 여동생에 대한 애상과 일본에서의 생활과 추억이 그려져 있다. 즉, 일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적 내용을 가장 잘 아우르는 추상적이며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적 담론이 동해였다고 생각된다. 9)

도이 반스이(土井晩翠)의 경우는 더욱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시상 전개로 일본의 환상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시를 쓰고 있다. 도이의 제2시집 《효종(曉鐘)》(메이지34.5)에 실려 있는 21편의 시중 마지막 장시 <부악지가(富嶽之歌)>에는 <성(星)><류(流)><해(海)><운(雲)><시신(詩神)> 등과 같이 소재목이 달려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파도>가 넘실대며 넘나드는 <3천리>의 일본 땅을 둘러싼 바다가 <동해>이며, <2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자 나라>10)가 일본이다. 그 일본 한가운데에, <혼탁한 세상에 용솨음치며> <그 위용을 자랑하는 후지산>, <천지 간의 영산> 후지산에는 <청풍이 불어오며> 그곳에 쌓인 <태고적 눈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천지간의 영산인(天地の間靈嶽)>인 후지산과 그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 일본 땅을 둘러싼, 추상적이며 막연한 미지의 동쪽 바다를 가리키는 <동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적 융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해>는 시적 담론으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5. 타쿠보쿠의 <일본해>

타쿠보쿠는 시적 문학적 담론에서는 <동해>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9) 타쿠보쿠는 <시담일측(詩談一則)>에서 <《동해에서》를 읽고(《東海より》を讀みて)라는 부제로, 자신의 시적 감회와 연관시켜 극찬하며 또한 상세히 그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당신이 보내 준 --- 사실 적절하게도 나의 최근의 시관을 유혹한다. 머난 먼 바다 저편, 영국과 미국 하늘 아래 머무르며, 저자 노구치 요네지로씨가 청춘의 감회를 적은 삼십 수편의 시, 이것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윽한 시상이 넘치고, --- > (《이와 테일보》1904년 1월 1일)

타쿠보쿠가 사용한 동해는 노구치로 부터의 영향이라는 선행논고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는 것은 영향관계가 아니고 시적 담론에서는 일본의 바다라는 의미에서 일본해보다는 동해가 어울림을 당시의 문학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0) 타쿠보쿠가 동해의 군자국이라고 한 것은 도이의 이러한 시의 영향이라는 선행논고가 있다.

적 현실적 담론에서는 <일본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글은 1905년(메이지38) 《이와테일보》에 게재된 <한천지(閑天地)>의 일부로, 신변잡기적 성격의 에세이라 할 수 있다.¹¹⁾

<한천지(閑天地) (15) 나의 작은 방(我が四畳半) (6) >
 작년 가을 9월 말, 갑자기 우수에 찬 마음으로 홀로 홋카이도를 여행했다.
 ---- 무쓰오마루 감판 위에서의 5시간 반, 아오모리에서 하코다테 까지,
 --- 쓰가루 해협을 건너 --- 하코다테에서 갈아탄 독일선적의 헤렌호에서 20
 시간, 오타루 부두까지의 항로야 말로 생각만해도 흥에 겹다 ---
 감판 난간에 기대어, 청정한 가을 하늘, 멀리 서쪽 일본해의 파도에 잠기고 있
 는 석양을 바라보며, ---

<한천지(閑天地) (16) 나의 작은 방(我が四畳半) (7) >
 돌아오는 길에는 하코다테와 오타루간에 철도가 개통된 지 삼일 제라하여,
 하코다테까지 이 등 객실에서, --- 두 번째의 쓰가루 해협은,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 배는 상하로 한 번씩 백양목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
 감판에 나서니, --- 가슴과 머리 싸늘하고 풍경은 모두 비장하다. 뱃전에 서서
 돛을 잡아 몸을 지탱하며, --- 오른 쪽은 일본해 왼쪽은 태평양, 일망창해의
 바람이 극심한 곳, ---

타쿠보쿠는 1904년 9월28일에서 10월19일에 걸쳐 홋카이도에 거주하던 둘째 누이 토라(トラ)를 방문하게 된다. 당시 누이의 남편(山本千三郎)은 오타루(小樽)중앙역 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은 시집 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지만, 누이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타쿠보쿠는 아오모리에서 무쓰오마루를 타고 쓰가루 해협을 거쳐 하코다테에 도착하여, 배를 독일 선적의 헤렌호로 갈아타고 오타루에 갔던 것이다. 이 때, 타쿠보쿠는 오타루를 향하던 배의 감판에서 서쪽의 바다 즉 <일본해>를 바라본 것이다.

또한, 아오모리로 돌아올 때는, 하코다테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의 감판에 선 타쿠보쿠의 왼쪽은 태평양, 오른 쪽은 <일본해>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장르상 신변 잡기를 적은 에세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명과

11) 岩城之徳《啄木全作品解題》,筑摩書房,1987. p.157

12) 石川啄木学会編《石川啄木事典》,おうふう, 2001. p.622

고유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점이 전술한 시적 담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타쿠보쿠는 사실적인 담론에서는 <일본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타쿠보쿠의 특징은 다음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처음 본 오타루 (初めて見たる小樽)>

나는 어디까지나 바람같이 떠도는 방랑자다. 세상의 유랑자다. 오타루 사람과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오타루 사람과 함께 끝없이 활동한다는 것은 발이 약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단지 자유와 활기 넘치는 오타루에 와서 강렬한 바다 빛을 보며, 장쾌한 진행곡을 들으며, 마음 가는대로 글을 쓰면 족한 것이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옮겨와, 과거 서로 창을 겨누고 있었던 일러양국의 상업관계가, 일본해를 비스듬히 사이에 두고 오타루와 블라디보스톡의 일선상으로 집중하려 하는 이 때, 내 별 생각없이 오타루 사람이 되어 일본 제1의 거친 도로를 달리는 몸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기분 좋은 일이다.

<오타루의 추억들(小樽のかたみ)> 《오타루일보(小樽日報)》1907년10월15일)

타쿠보쿠는 1907년5월 고향 모리오카를 떠나 홋카이도에 정착하게 된다. 하코다테, 삿포르를 거쳐 새로이 창간된 오타루일보에 근무하기 위해 오타루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인용문 <처음 본 오타루>도 《오타루일보》창간호에 실린 글이다.

오타루는 홋카이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앞 바다의 명칭은 <일본해>로 불려졌다. 타쿠보쿠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오타루 사이의 바다 명칭을 <일본해>로 쓰고 있다.

이와 같이 타쿠보쿠는 사실적 담론에서는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타쿠보쿠는 사실적 담론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시적 담론에서는 <동해> 또는 동쪽의 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 생활적

감각, 즉 자연스런 언어표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일간에 <동해>가 타당한 명칭인가 <일본해>가 타당한 명칭인가를 두고 양국의 입장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 대립은 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한일양국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상호 발전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타쿠보쿠나 당시의 시인들이 읊은 시적 담론의 의미를 돌이켜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텍스트는 《石川啄木全集》(筑摩書房, 1979)을 사용하였다.

김신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1997

《아! 동해 그 이름을 찾아서》, 조선일보사 - 경희대학교 발행, 2002 (본 책자는 <동해> 전람회 팸플릿임을 밝혀둠.)

岩城之徳編《石川啄木必携》, 学灯社, 1981

国際啄木学会編《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 2001

岩城之徳《啄木全作品解題》, 筑摩書房 1987

要 旨

啄木は事実的な言説では「日本海」という表現をしているが、詩的な言説では「東海」または東の海という表現をしている。これは日常的または実生活的な言語感覚から来た自然な言語表現であると思われる。

現在、韓国と日本は「東海」が妥当な名前であるか、または「日本海」が妥当な名前であるかに対して、尖鋭な対立を見せている。これからも両国の立場の異なることから、この対立は譲れない状況が続けられるだろう。

しかし、こういった対立は韓日両国の発展に決して望ましくないことであ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このような対立を考え直し、両国の未来への進歩のために、啄木のような当時の文学者が書いていた詩的な言説を読み直してみることは意義あること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東海、日本海、詩的な言説、事実的な言説、韓日両国の対立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05-791)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42-821-1354, 011-9038-1354
e-mail : jsyun@hanbat.ac.kr